



# 한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와 평가 방향

## - 2주기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

이 현 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I. 들어가면서

21세기 대학교육은 고객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탈국적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그리고 탈캠퍼스 교육(campusless education)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육이 국경과 캠퍼스와 교과내용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지식기반사회의 진입과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은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구조조정도 질 관리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1980년대 선진국에서 강조되어 왔던 구조조정의 전략적 측면인 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의 재설계(reengineering), 자원의 재분배(reallocation) 등과 함께 특성화와 다양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혁 등 질적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대학교육 기능의 재정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과제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라 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각국이 대학교육의 향상을 위해 주창하고 있는 자율과 책무의 관련 역시 대학교육의 질 통제 기제 없이

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는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중에서도 대학평가인정제도는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공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질적 인정제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학발전을 위한 지구적 노력을 유발하고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진작시키는 목적, 그리고 재정지원 확대와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간 대학 내 협동성을 진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신장하기 위하는 데 부수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의해서였고, 1994년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학문계열(분야)평가와 종합평가의 성과는 매우 컸으며 평가의 사회적 의미 또한 날로 중요시 되어 가고 있다. 물론 대학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1

주기 평가 과정에서 노정된 쟁점도 없지 않지만 향후 대학의 질적 수월성 제고와 경쟁력 있고 독특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나 특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습고객에 대학교육 과정적 경영전략의 수립 등을 위해 질적 관리체제인 평가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1주기 평가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커다란 과제라 아 니할 수 없다.

## II. 1주기(1994~2000년) 대학평가의 의미와 기여

1994년 이후 2000년 4월 현재까지 총 168개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주기 7년이 되는 2000년 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학사구조조정 등 제반 교육개혁의 촉진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대학평가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나 주체들간에 1주기 대학평가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 활용 등에 관련하여 여러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했던 것도 사실이다.

1주기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쟁점들은 대학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신뢰도와 객관도 그리고 타당성의 제고 문제, 절차와 방법 및 평가 항목 그리고 기준, 척도 설정과 관련된 견해 이외에도 서열화나 등급화의 필요성 등 결과 발표와 관련된 쟁점 등이었다. 또한 정성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준거가 더욱 명확해야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투입 중심보다는 output과 outcome 비중으로 척도와 항목이 달라져야 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견해들이 있어왔다. 물론 현지

방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든지 평가자의 평가자 오류(bias)를 최소화해야 한다든지 평가 주기와 관련된 문제 등도 논자의 견해에 따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기와 관련된 쟁점

평가인정제의 1주기를 7년으로 설정한 것은 너무 길며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들이 있다. 그리고 한 해에 모든 대학을 평가해야만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모든 대학을 동시에 실시하지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기 연한의 단축문제나 대상에 관련된 쟁점은 평가 결과의 활용목적이나 평가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대교협의 평가 또한 대학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욕구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더구나 개별 대학들의 준비도에 따라 평가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2주기 평가를 위한 발전 과제라 볼 수 있다.

### 2. 평가 결과의 발표와 관련된 쟁점

대교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관련된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는 평가 결과의 발표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정부측 입장이나 언론계 등 사회적 요구는 평가 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서열화나 등급화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주장 또한 일리 있는 견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활용목적이나 평가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평가 대상

대학들의 입장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문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교협의 종합평가인정제는 우리나라 전 대학의 여건과 질을 일정수준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을 설정한 평가이고 개별 대학들의 준비도에 따라 평가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평가제도이다. 그러므로 인정과 불인정 혹은 조건부 인정 등의 인정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평가 항목이나 기준 역시 평가인정을 준거로 하고 있다. 물론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서열화나 등급화도 가능할 것이지만 이것은 평가인정제의 본 취지에 벗어난 일이다. 다만 각 영역 별로 우수그룹과 비 우수그룹 등을 식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를 감안한다면 서열화나 등급화가 가져다 줄 역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평가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 3. 평가 부문, 항목, 기준, 척도 설정에 관한 쟁점

대학종합평가의 핵심적 부분은 평가 준거가 무엇이며 어떤 항목과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느냐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영역인 교육, 연구, 봉사, 교수, 시설설비, 행·재정에 관해서는 별반 논의가 없으나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량적 부분에서의 척도 설정에 관해서 견해들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들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양적 지표를 준거로 한 5점 평정 형식의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어 신뢰성의 문제에는 커다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는 100개 항목 중 65%의 정성적인 부분

과 35%의 정량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고 대교협의 종합평가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 내용에 관한 논의들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의 목적과 철학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종합평가의 경우는 대학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건강진단을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일 수밖에 없고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이 병용될 수밖에 없다. 물론 2주기의 경우에는 대학 환경 변화와 여건에 따라 다른 평가의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평가 부문, 항목, 기준, 척도의 설정이 다양화되고 특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절차 및 평가 위원 구성 등의 쟁점

대학종합평가의 절차는 자체 평가 → 서면 평가 → 현지방문 평가 → 평가인정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접근이다. 물론 평가 위원 구성도 6개 영역을 포함한 영역평가 위원, 평가단장 그리고 대교협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2박 3일의 기간 동안 평가를 하지만 시간과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긴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2일간의 오리엔테이션보다 긴 기간 동안의 충분한 준비를 통한 평가 위원 풀제도 가능할 것이고 대학교수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평가자 간의 평가자 오류의 최소화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수 있고 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한 측면도 논의의 소지가 있다.

### 5. 평가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1주기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주체에 관한 논의

또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목적의 평가라든지 언론사들의 평가 그리고 학문분야 평가와 관련된 근자의 공학인증인, 의학인증기구 등의 설치 등 평가 주체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한 실정이다.

### Ⅲ. 2주기(2001~2005년) 대학평가의 방향

일반적으로 대학평가는 학부와 대학원, 기관과 영역평가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평가 영역을 설정한 다음 영역 내에 부분을 설정하여 대학기능 수행상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 항목을 배정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개념화한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화된 평가 준거의 설정과 절차는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21세기에 접어드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평가는 접근 방법과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이 새로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대학의 구조나 기능도 달라질 것이고 교과내용과 교수방법 그리고 대학 경쟁력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21세기 대학의 특성은 상아탑적 교육관에서 교육 산업적 교육관으로 변화되고 공급자 위주의 대학교육에서 소비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로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방에 의한 초국이 교육이 확대되고 성인 학습자들과 시간제 학생들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 직원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시설설비 그리고 교육목적들이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 내용의 변모에 따라 결국 대학평가의 접근도 대 변혁을 요구받

게 될 것이다.

#### 1. 2주기 대학평가의 접근 및 결과활용

21세기 대학은 크게 변모할 것이므로 대학평가의 접근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평가 주기, 평가 영역 및 항목, 척도 그리고 대상은 물론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들이라 볼 수 있다.

우선 평가 주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7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물론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제도도 도입할 여지를 남겨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그 다음 주기의 평가를 면제하거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됨직하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중간 보고하는 방안의 진척 평가(progress check)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한 1주기와 차이 식별기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둘째로 평가 영역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평가 영역을 재조정하고 평가 항목 수를 축소하며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영역 및 항목도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 요소(essential criteria) 부분과 유사한 대학군별 부분 요소 그리고 개별 대학별 항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시설설비와 같은 외형적인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평가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평균 수준보다 한 단계 상향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양적 내용을 평가할 경우 명확한 척도와 실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평가 항목 역시 1주기의 100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으로 조정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평가대학을 유형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편람과 기준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리고 모회사

양성 대학, 남녀공학대학과 여자대학, 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대학 등 설립시기와 규모 그리고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있고 큰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영역과 부문 그리고 항목은 표준화하되 가중치와 지표 등에서 다양한 대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네 번째로는 평가 결과의 발표형식과 관련된 방안이다. 평가 결과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지만 대학을 4~5개로 그룹화하여 발표하고 상위그룹 대학에 대해서는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또한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획일적인 방법은 조심해야 할 일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대학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다. 평가 점수는 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더라도 대학원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이나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기능 분화될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는 평가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내부집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여 평가 위원 구성은 현재와 같은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산업체, 정부,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공인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을 상시로 교육시켜 평가 위원 풀제를 도입하는 일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종합평가의 향후 접근 방안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특성이 다른 대학들에 맞게 평가를 시행하는 과제

- 계열화와 연결하여 학문계열 평가를 종합평가와 연계선상에서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 평가를 담당할 지원 인사의 확보 및 개발과 관련된 과제
- 정량적 평가 척도의 조정과 관련된 과제
-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와 관련된 과제
- 대학평가인정결과의 활용과 결과에 따른 보상 정책의 설정과 관련된 과제
-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과제
- 대학평가 척도의 연차별 현실화와 관련된 과제
- 대학평가 주기의 조정과 관련된 과제
- 평가의 대 영역별 재조정과 관련된 과제
- 현지 방문평가지침과 피평가 기관의 분석과 관련된 과제
- 연도별 대학지표와 서면평가의 기술적 조정 과제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과제
- 정부와의 협력체제구축 과제
- 평가 철학의 재정립 과제
- 평가 주기와 관련된 과제
-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된 과제

등이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과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평가 철학, 주체, 대상, 절차 그리고 내용 등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다만 앞서 전제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비정부(non-government)적 접근과 사회 전체의 질 관리체제를 염두에 둔 대상, 절차, 내용, 결과활용 등의 다양화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 2. 2주기 평가의 방향

2주기 평가인정제의 방향을 요약해 보면 목적과

기능, 평가 기준과 내용 그리고 절차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별 대학의 특성화를 이룩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즉,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기반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대학교육 전반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추구하여 국내 상위권 대학이 국제적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다(대교협, 1999).

-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책무성 향상
- 대학의 자율성 신장
- 대학간 협동성 진작
-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향
- 대학교육의 특성화 / 다양화 유도
- 대학전략화 촉진

이러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 이외에도 평가 대상이나 유형에 따른 목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행정지원형 평가 목적, 특성화 유도형 평가 목적, 신설대학 평가 목적, 구조조정형 평가 목적, 국제 경쟁형 평가 목적 등이라 할 수 있다.

- 행정지원형 평가 목적
- 특성화 유도형 평가 목적
- 신설대학 평가 목적
- 구조조정형(경영진단형) 평가 목적
- 국제 경쟁형 평가 목적

### 2) 평가 기준의 설정 방향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이 계획·운영·성과상의 제요소들에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체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가치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평가 기준 설정시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속성은 유용성, 현실성, 적절성, 명료성 등이다(대교협, 1998).

첫째, 평가 기준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최우수 그룹의 경우 세계 수준의 대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optional level을 설정하고 양적 지표보다는 질적 지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한다. 평가 항목도 1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개 문항으로 설정한다. 1주기에 해당하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마지막 연도인 2000년에 도달하여야 할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여 7년 동안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단, 경비를 나타내는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다.

둘째, 평가 기준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신학대학 등에 관계없이 공통기준(essential criteria) 대학 유형별 특성, 그리고 개별 대학 특성을 반영한다. 일반대학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남녀공학 대학과 여자대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평가 기준의 설정에 반영한다.

셋째, 평가 기준 중 정량적 평가 지표의 평가 척도는 각 평가 지표마다 비교적 정상분포에 의거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에 5단계로 구분하고, 일반적·평균적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바람직한 평가 척도(+1 수준)로 설정한다. 정성적 평가 지표도 역시 위와 같은 접근을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서로 다른 평가자라도 동일한 내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객관화시킨다.

넷째, 평가 기준의 체계에는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 결과는 학부의 경우 500점을, 대학원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합산하게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타당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성적 평가 지표와 정량적 평가 지표에는 공히 5점척의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상기 기본방향을 재검토하고 1주기 실제 평가 시행 과정상에 드러난 쟁점들을 참고하여 2주기 평가 기준 설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용이성 고려
- 대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석적 정보 제공
-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한 평가 결과를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연계하기
- 정성적 평가 항목 중심의 기준 설정 및 평가 항목 수의 축소
- 종합적 대학 정보 제공
- 공공성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의 단순화

### 3) 절차 및 운영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절차와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대전제하에서 설정될 것이다.

-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발전시킨다.
-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세분화되고 피평가대학의 특성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피평가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평가 절차와 방법을 최적화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개선시킨다.
- 지속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사후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평가 준거를 세분화, 다양화한다.
- 평가와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평가대학과 사회 일반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평가주관 기관과 피평가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사회일반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한다.
- 피평가대학의 자율적인 평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절차, 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다.
- 평가 인정기간을 단축한다.
- 평가 항목을 축소한다.
- 투입에 대한 비중을 최소화시키고 과정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방문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대학교수로만 구성된 평가위원의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내부자 평가의 한계를 벗어난 시스템을 구축한다.
- 평가자간 신뢰도인 객관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 서면 평가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개선한다.
- 신설대학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4) 절차 및 방법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다음의 5가지 시

시스템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 상시평가 시스템
- 대학종합평가인정 시스템(중간점검 평가, 사전평가 포함)
-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 신설대학평가 시스템
- 특수목적평가 시스템

5) 학부평가 영역 및 정량적 평가 척도

- 2주기 평가 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안)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수	가중치
1. 대학경영 및 재정	1.1 경영전략 및 기회	(9) 3	(50)
	1.2 대학의 특성화	2	
	1.3 대학재정	4	
2. 교육 및 사회봉사	2.1 교육목적	(11) 2	(130)
	2.2 교육과정 및 방법	3	
	2.3 학사관리	3	
	2.4 사회봉사	3	
3. 연구 및 산학협동	3.1 연구실적	(9) 3	(100)
	3.2 연구여건	3	
	3.3 산학연협동	3	
4. 학생 및 교직원	4.1 학생	(10) 3	(70)
	4.2 교수	3	
	4.3 직원	4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5.1 학생지원체제	(12) 3	(70)
	5.2 교육지원체제	3	
	5.3 연구지원체제	3	
	5.4 정보지원체제	3	
6. 발전전략 및 비전	6.1 장기목표와 비전	(3) 1	(80)
	6.2 실천 전략	1	
	6.3 실천 계획	1	
계		53 (50개로 조정중)	500

#### IV. 맺으면서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시대의 대학들에게는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평가의 접근 또한 신뢰성과 타당도를 지닌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사회·국가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



는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종합평가와 사무행정의 합리화, 대학경영의 효율화, 그리고 학사운영의 최적화 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를 통해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대학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도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인정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종합평가의 성공여부는 결국 국가 교육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대학평가의 목적이 대학의 수월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강화, 자율성 신장,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간 협동성 진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유도 확대 등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기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학은 다르고 평가 또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대상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평가 준거나 절차 그리고 활용 목적도 달라야 한다.

한마디로 2주기 대학평가의 접근과 결과 활용은 대학평가 척도의 다양화, 연구중심대학과 대학특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학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되고 있다. 대학평가는 재정지원이나 강압적 질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와 자기 질 관리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2주기의 평가는 대학들의 기능분화에 맞게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중심대학대로, 교육중심대학은 또 그러한 특성의 대학대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기점검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 질 관리 기제(society quality control)로서의 역할 확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궁극적 목적은 우

리나라 대학들이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인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대학 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간 협동성 진작, 대학 재정지원의 확충 등과 함께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향을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을 평가 대상이나 평가 기준의 유형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행정지원형 평가 목적, 특성화 유도형 평가 목적, 신설대학 평가 목적, 구조조정형 평가 목적, 국제 경쟁형 평가 목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유형에 근거한 다양한 평가 기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학의 특성들이 있다. 즉, 대학의 설립 유형, 재학생의 성별 분류, 대학 소개지, 대학의 중심학문 분야, 대학의 지향점, 대학의 규모, 설립시기, 특성화 추진 자원, 정부의 행·재정지원 여부, 경쟁력 수준 등이 그 예이다. 이들 특성 중 상당수가 같은 유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평가 기준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에 따른 기준 개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의 설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구체적으로 대학의 특성 반영,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용이성 고려, 대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석적 정보 제공,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한 평가 결과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연계, 정성적 평가 항목 중심의 기준 설정 및 평가 항목 수의 축소, 종합적 대학 정보 제공, 공공성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의 단순화 등이 요구된다.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들이 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시평가

시스템, 대학종합평가인정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신설대학 평가 시스템, 특수목적평가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종합적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예상할 때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부단위 조직을 대학평가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다양한 기능 수행을 하게 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평가기획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문분야 평가 역시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할 것이며 전체적인 사회 질 관리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기구들과의 협력체제를 견지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 달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평가 결과 활용 문제이다.

평가 결과에 의존한 재정지원 차등화를 강화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선진 외국의 대학평가 사례에서도 재정지원의 차등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보상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학에는 조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평가 결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시행되는 것은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가치부여에 있어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